

보건교사 출신 교감 8명 배출

보건교사 출신 교감이 2014년 첫 배출된 데 이어 전국에서 모두 8명의 교감이 활약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김학순 충북 청주 산남중 교감(2014. 9. 1 발령 당시 육산중 교감) △김선미 광주광역시 광주세광학교 교감(2015. 9. 1) △홍문심 전남 영암군 은광학교 교감(2015. 9. 1) △송희옥 대구 달성고 교감(2016. 3. 1) △송영희 서울 성내초 교감(2016. 3. 1) △강미옥 울산 무거중 교감(2016. 3. 14) △정수정 전북 군산시 산북초 교감(2016. 9. 1) △홍승문 경기 이천시 이천양정여중 교감(2016. 9. 1)이다. 팔호 안은 발령일.

그동안 교련교사 출신으로 교감을 지낸 간호사는 있었지만, 보건교사 출신의 교감이 탄생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2013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교감 자격 기준에 보건교사가 포함됐다. 일정 교육경력 등을 갖춘 보건교사(1급, 2급)가 교감 자격역수 과정을 이수하면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학순 산남중 교감은 1978년 충주대를 졸업했으며, 충남대에서 간호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교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충북교육청 보건장학사를 지냈다. 김학순 교감은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교사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믿고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면서 "보건교사 출신 1호 교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보건교사 출신 교장 탄생의 역사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선미 광주세광학교 교감은 1988년 기독교간호대를 졸업했다. 조선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보건간호학 석사학위,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부터 광주세광학교(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졸업 담당 교감이었다. 광주세광학교 특수학교 성교육 장학자료 집필위원을 지냈다. 김선미 교감은 "겸허한 자세로 선생님들과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기대에 부응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순 청주 산남중, 김선미 광주세광학교, 홍문심 영암 은광학교, 송희옥 대구 달성고



송영희 서울 성내초, 강미옥 울산 무거중, 정수정 군산 산북초, 홍승문 경기 이천양정여중

○...홍문심 은광학교 교감은 1982년 목포기톨릭대를 졸업했으며, 세한대에서 특수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은광학교(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졸업 담당 교감이었다. 홍문심 교감은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학생들이 사회성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희옥 달성고 교감은 1980년 안동과학교대를 졸업했으며, 경북대에서 간호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교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구시교육청 보건장학사를 지냈다. 송희옥 교감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중도탈락자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영희 성내초 교감은 1985년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학위, 한양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교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보건장학사를 지냈다. 송영희 교감은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과 더불어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욱 신경 쓰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

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미옥 무거중 교감은 1980년 경상대를 졸업했으며, 부산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와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교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울산시교육청 보건장학사를 지냈다. 강미옥 교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학력향상·인성교육에 힘쓰고, 소통의 리더십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직원들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수정 산북초 교감은 1986년 예수대를 졸업했으며, 군산대에서 교육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전북보건교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정수정 교감은 "교육자로서 긍지를 갖고 바른 교육행정을 거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배 보건교사들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문 이천양정여중 교감은 1983년 수원여대를 졸업했다. 졸업 후 바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천양정여중에서 30년을 근무했다. 홍승문 교감은 "이천양정여중이 모교인 만큼 단순히 직장이 아닌 내 학교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즐겁게 해왔다"면서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치유와 배움이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숙현·주혜진·최수정 기자

대구경북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찾아가는 유휴간호사 교육'

대구·경북권역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센터장·김현미)는 '찾아가는 유휴간호사 교육'을 8월 23~25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는 유휴간호사들이 거주지에서 손쉽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센터에서는 지난 7월 포항·경주 지역에서 유휴간호사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미·김천·문경·상주 지역의 유휴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경북보건대 간호학과(학과장·최영

아) 실습실에서 진행됐다. 유휴간호사 21명이 참석해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았다. 지역병원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도 열렸다. 구미강남병원, 구미강동병원, 구미아성병원, 구미참조은병원, 김천제일병원, 문경제일병원 간호부서장이 참석해 병원을 소개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부산시간호사회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간호와 리더십' 주제 순회보수교육을 8월 23일 개최했다. 주임간호사 이상 중간관리자 158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시간호사회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했다.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간호리더십 개념과 개발 방향 △자무리더십 개발 △셀프 리더십 개발 △삼중교차리더십 개발 등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김숙현 기자 shkim@

경북간호사회 분야별 간호사회 간담회

경북간호사회(회장·윤난숙)는 '분야별 간호사회 간담회'를 9월 1일 개최했다. 경북병원간호사회, 경북보건간호사회, 경북보건간호사회의 회장과 임원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분야별 현안과제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대한국간호협회의 정책방향과 경북간호사회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오는 11월 5일 개최 예정인 경북간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병원간호사회 간호와 법 세미나

병원간호사회(회장·박영우)가 간호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간호와 법 세미나'를 9월 6일 개최했다. 회원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간호사 출신인 손명숙 변호사와 이경희 변호사가 강연했다.



손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울)는 '의료법에서의 간호 조맹' 주제강연을 통해 의료법, 보건의료기법, 환자안전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간호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인사/동정

세브란스병원 오경환 간호담당부원장

세브란스병원 제6대 간호담당부원장에 오경환 간호수석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9월 1일자.

오경환 간호담당부원장은 연세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창의성 아카데미 고위 자과장,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고위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1981년 세브란스병원에 입사해 응급진료센터·실무교육실·심장혈관병동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2011년부터 간호수석부장을 맡아왔다. 올해 연세대 최우수 업적직원상을 수상했다.

현재 병원간호사회 제1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정책위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정평가 판정위원,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입평가 진료지원부문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오경환 간호담당부원장은 "간호 교육과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면서 "간호사 실무능력 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세브란스 간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중앙대병원 조진경 간호부장

중앙대병원 간호부장에 조진경 적정진료관리(QI)실 팀장이 승진 임명됐다. 9월 1일자.

조진경 간호부장은 1985년 중앙대를 졸업하고 동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 용산병원에서 간호사로 첫 발을 내디뎠으며, 간호감독을 지냈다. 2003년부터 중앙대병원에서 몸담아왔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외래교수, 의류기관병간증원 자원조사위원을 지냈다. 병원수술간호사회



이사, 한국QI간호사회 이사, 병원간호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조진경 간호부장은 "환자중심의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문순현 간호사, 사회복지의 날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

문순현 제주 참양재원원 간호사가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9월 7일 개최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7회 전국사회복지대회' 기념식에서 열렸다.



문순현 간호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20여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장애인들의 건강과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를 적극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지원 연계 등을 위해 힘썼다.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했다.

문순현 간호사는 "복지시설에서 간호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순현 간호사는 1981년 제주한라대를 졸업했으며,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제주시사회복지관, 제주정신요양원, 제주평화왕로원 등에서 근무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게시판

연세대 간호대학 110주년 학술대회

연세대 간호대학(학장·이태화)은 '간호대학 11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Envisioning Nursing 2030 : 건강한 미래를 향한 간호비전' 주제로 9월 30일 개최한다. 메를 전산초 학술교육재단(이사장·심치선)에서 후원한다. 기념식은 오전 11시 세브란스병원 은평대강당에서, 학술대회는 오후 1시 간호대학 전리관에서 개최된다. 학술대회에서는 보건의료현황과 간호발전

기독교간호사회 학술대회

대한기독교간호사회(회장·정순화)는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및 연세대 간호대학과 공동으로 창립 49주년 기념 영적간호와 간호선교 학술대회 및 감사예배를 '간호역사와 글로벌 리더십' 주제로 10월 13일 오전 9시 연세대 알펜관 및 세브란스병원 예배실에서 개최한다. 홈페이지(koreancf.org) 참조.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더 JUMP!

19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